

돌머리를 맞춘 上面에는 은장(穩裝)을 鐵로 끼었던듯 形跡이 있다. 그렇고 다음 上段井字形石들은 長石兩端을 相互 엮을리게 四隅가 上 下半式을 과서 平面을 이루었다. 이 最上部的 井字形石內 즉 第二 七段 水平面과 같이 東側에 板石으로 內部를 깔았으며 西側에는 마 루를 놓은듯 三箇石(第二七段石根)에 V字形으로 과져있다.

특히 第二五段 西側長石頭 兩端과 第二六段 北側長石頭 兩端에는 外表上面에서 中間에 안쪽으로 『刻하여 있고 內側은 가는 목을 人爲的으로 만들어 졌다. 石材運搬에 바줄을 감았던 것이 아닐까推 定된다.

以上은 臆是臺를 實測함에 있어서 所見을 略述한 바이며 實測圖及復 元圖를 別添한다.

## 異型瓦當 二例

金正基

### 一、蓮花文異型瓦當(國博所藏)

忠南 靑陽郡 赤谷面 花山里에서 出土된 이 瓦當은 蓮花文 숫막새를 變形하여 만든 것이다. 즉 文樣은 比較的 隆起가 甚한 八瓣素文蓮花 文으로 中央의 子房은 外周에 幅四mm 程度の 높은 띠를 둘러 그 속이 七顆의 珠房이 있다. 瓦當 둘레에는 周緣턱이 없어 一見 椽端瓦 같은 느낌이 든다. 이와 비슷한 文樣의 瓦當은 六四年 봄에 國博에서 施行된 扶餘郡 恩山面 琴谷里 寺址調査에서도 發見되었는 듯 記憶하나 아직 未整理하기에 確實하게 言及할 수가 없다.

이 瓦當의 奇異한 點은 그後面에 굽직한 圓筒形 突起가 있는 점이다. 瓦當直徑이 約 一三cm인데 突起의 굽기는 七·五cm로 그 길이는 約 九·〇cm로 안이 비어 있다. 이 突起의 形態는 그다지 整齊된 것이 아니고 그外面엔 若干의 起伏이 있고 그속의 孔部는 內部에 같

第六卷 第三·四號 通卷五十六·五十七號

수류 줄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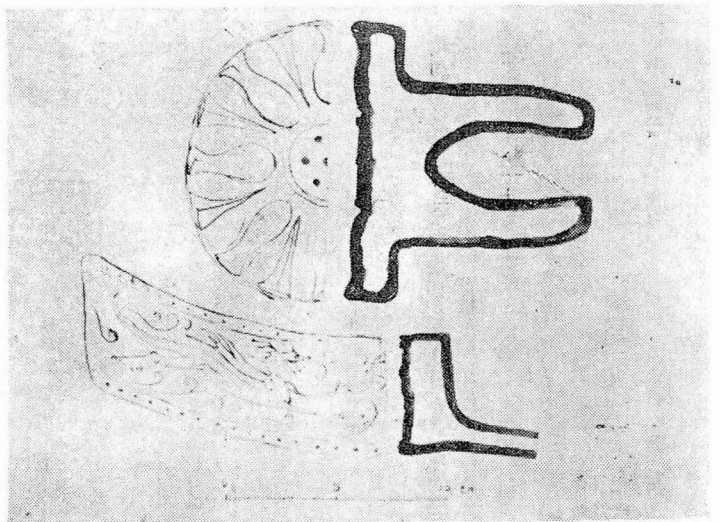
이 구멍은 이 突起를 만들때의 工 作으로 생긴 것으로 어떤 機能을 가진 것은 아닌 듯 하다.

### 二、雙龍文암막새 (梨大博所藏)

慶州 昌林寺址 出土라고 傳하는 이 瓦當은 火炎에 둘러 쌓인 寶珠를 가운데 두고 左右에 飛龍을 配置하여 餘白에 瑞雲을 날린 流麗한 手法으로 된 거의 完全한 瓦當이다.

이와 똑같은 文樣의 瓦當이 日本京都大刊「新羅古瓦の研究」에 收錄되어 있다. 역시 昌林寺出土로 밝혀 있는 것이다. 이 瓦當에는 그 下頤部에 역시 아름다운 忍冬唐草文이 附加되어 있다(圖版四四、五五).

梨大所藏의 瓦當이 異型이라 함은 그 암막새의 平瓦部分이 普通的 암막새와 같이 瓦當의 上端面에 附着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下端部에 附着된 點이다. 그렇기에 이 瓦當의 下頤部에는 아무런 文樣이 없어 바로 平瓦의 밑바닥이 된다. 이렇게 암막새의 平瓦部가 막새의 下端部에 달린 것은 그다지 흔한 것은 아닌 듯 하나 역시 前記書의 本文二四頁插圖一六을 보면「慶州出土平瓦瓦當部斷面圖」라 하여 몇개의 瓦當斷面圖가 있으며 그중 한개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러한 特殊瓦에 對해서는 아무런 解說 또는 言及이 없었다.

以上의 두 異型瓦當의 使用法을 생각해 보니 좋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 前者는 椽端瓦의 試作品 또는 鴟尾의 兩翼間을 메우는 後壁에 있을 수 있는 구멍을 메우는 것일까, 後者는 아마도 마루 또는 合閣마루나 春舌마루 끝에 사용된 積새의 一種으로 사용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春舌마루 등에 사용된 望瓦 같은 것인지 同學 諸賢을 바라는 바이다.

原城 法泉寺址 發見 石燈火舍片

金 東 賢

一九六五年二月十五日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法泉里 二區 法泉寺址 內 智光國師 玄妙塔 殿址의 補修 工事を 하던 中 中央建物址 西南角 基壇石 밑에 埋沒되어 있던 石燈 火舍石 大小 二片을 發見하였다. 이들 火舍石 二片은 多幸히 復原이 可能하여 그 規模를 手일하게 짐작할 수가 있고 그 彫法이나 아이디어가 現在 알려진 石燈 火舍石과 比較하여 독특 한 바 있어 石燈 研究에 좋은 資料가 되겠기에 簡單히 紹介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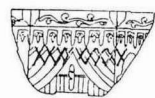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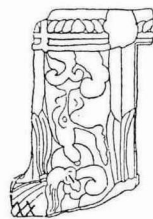
이미 알려진 石燈 火舍石의 大部分이 八角形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復原 實測한 結果 六角形임을 알게 되었다. 石質은 軟한 花崗石으로서 三面을 火窓으로 한듯 하다. 火窓은 長方形이며 石燈 蓋石 바로 밑 部分은 一·八cm 幅으로 唐草文을 陽刻하여 돌렸고 그 밑은 四·二cm 幅으로 一面을 여섯개의 區間으로 劃定하여 花葉文을 刻하였다. 稜形 裝飾 끝에는 구슬을 달고 그 안에서 一面垂直中心線 양편으로 커테를 견어올려 轉角部에서 結束하여 아래로 늘어뜨렸다. 커테 양쪽으로는 間隔 一·八cm로 分割한 窓외 引枋 裝飾이 커테 사이로 나타나 보이고 있다. 火窓의 아래는 單瓣仰蓮을 彫刻하여 밑 部分을 處理하였다. 막힌 面은 稜形裝飾文까지는 同一한 彫法으로 刻되었고 그 밑은 구슬을 단 飛天像이 浮刻되었으나 磨損이甚하여 뚜렷하지 못하다. 飛天像 아래는 兩手에 무엇

인가를 든(磨滅이甚한) 供養像(?)이 또한 雲紋 위에 浮彫되었고 佛頭周圍에는 圓頭光이 刻되었 다.

火舍石 底面으로부터 六·七cm의 幅으로 欄干을 돌렸다. 欄干은 돌판대와 法首가 달린 欄干柱로 構成되었으며 欄干柱 사이에는 仰蓮을 刻하였다.

部落民 郭在寧氏宅 장독대에서 六角 臺石이 發見되어 或是 이 火舍石과 關聯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火舍石 復原高 約 四二cm 一邊 幅 一六cm 火窓高 一三cm 火窓幅 九cm



鳳巖寺 磨崖佛坐像

金 和 英

鳳巖寺 寺域에서 西北으로 돌린 溪谷을 따라 約 十五分間 올라가면 玉石臺(一名 白雲臺라고도 稱함)라고 부르는 곳에 巨巖의 北壁을 다듬고 七·十cm 정도 의 깊이로 龕形처럼 파서(頭部周圍는 더욱 깊음 使이다) 그 안에 總高 約 六m의 坐像을 陽刻하였다. 蓮華座위에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서 素髮의 頭頂에는 낮은 肉髻가 뚜렷하며 가름한 相好에는 眉間에 白毫가 있고 兩眼은 半開하였다. 鼻部에는 破損이 있어 「씨멘트」로 補強하고 兩耳는 比較的 긴 便이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通肩한 法衣는 兩腕을 걸쳐 무릎을 덮었고 胸前에는 裙衣의 結帶가 뚜렷한데 衣